

“출산 경험이 강렬한 창작 영감 안겨 줘”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영화감독으로 변신...영화 ‘침입자’ 손원평 감독

참으로 지난했다.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것이 8년 전, 영화가 개봉일을 잡은 건 지난 3월이었지만, 코로나 19 사태에 4월로, 5월로 미뤄졌다. 마침내 6월 4일로 개봉일을 확정된 영화 ‘침입자’의 손원평 감독은 “감개무량하고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침입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개봉하는 상업 영화라는 예상치 못한 타이틀을 갖게 되면서 오랜만에 대규모 시사회가 열렸다.

손 감독은 2001년 영화 평론가로 데뷔한 뒤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진학해 몇 편의 단편 영화를 쓰고 만들어 왔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먼저 알린 건 창비청소년문학상(2016)을 받은 소설 ‘아몬드’다.

‘아몬드’는 출간 이후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청소년 추천도서 등에 꼽혔고 출간 1년 만에 20만부 넘게 팔렸다. 해외에서도 12개국에 번역 출간됐다.

손 감독은 영화를 공부하고 단편을 찍으면서도 매년 신춘문예를 빼놓지 않고 응모했다. 손 감독은 “사람들과 어울려 영화를 만드는 것도 좋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이 날 때는 항상 글을 썼다”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약점과 힘든 점을 보완해 왔다”고 했다.

“소설도, 영화도 오래 걸렸어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포기를 하든 안 하든 달라질 게 없으니 계속해 온 거죠.”

소설 ‘아몬드’와 영화 ‘침입자’는 같은 시기에 시작됐다. 강렬한 창작의 영감을 안겨 준 것은 출산이라는 개인

코로나19에 두차례 개봉일 미뤄져
4일 개봉 확정 “떨리고 감개무량해요”
소설 ‘아몬드’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
“아몬드는 영상으로 만들지 않을 것”

적인 경험이었다. “아기를 낳고 너무 질박했던 나머지 작업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찾아온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온갖 장르로 창작했던 거죠.”

영화 ‘침입자’에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낯선 사람으로 25년 만에 찾아온 동생 유진(송지호 분)은 가족으로서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다. 손 감독은 “가족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 약간만 비틀리면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며 “그게 가족 스릴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차기작이 예정돼 있을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은 없다”고 했다. ‘아몬드’를 영화로 불일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책을 안 보던 아이들이 책을 재밌게 봤다고 할 때가 보람 있어요. 영상으로 만들면 상상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아몬드’는 계속 활자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광주차이나센터, 한·중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광주시 차이나센터(센터장 조경환 호남대 교수)는 최근 광주시 서구 차이나센터 다목적홀에서 ‘광주시 차이나센터 제3기 한·중 대학생 서포터즈’ 면접심사를 가졌다. 최종 합격자는 2일 발표할 예정이며, 서포터즈단은 6월 중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호남대 제공>

광주문화예술회관,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지난달 28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서포터즈 ‘CC(Culture Creator)’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온라인 채널(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문예회관을 홍보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기아차광주공장 밀알봉사회, 세광학교에 성금 1000만원



기아자동차광주공장 밀알봉사회(회장 장기술)가 지난 2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를 통해 시각장애특수학교인 광주세광학교(교장 김선미)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광주대 이영석 명예교수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번역 출간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이영석 명예교수가 15세기부터 현대까지 전염병과 상업·무역의 상호관계를 다룬 번역서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푸른역사)를 펴냈다.

책은 6세기에 걸친 5개 대륙의 전염병과 사회·경제적 충격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유행 병이 창궐했을 시기에, 서구 각국의 대응과 어떠한 방법으로 국제공조를 이룩하려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주로 19세기에 발생한



콜레라와 페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 광우병 파동과 2000년대 사스(SARS) 등 새롭게 인류를 위협하는 인수 공통감염병 전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영아일시보호소 후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 봉사단(단장 차현국)은 지난 28일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 맛에 산다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생여정(재)	00 본 어게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모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20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30 오월애인연 3부작(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작중우돌 만국 유망기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5 MBC 뉴스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저녁 같이 드실래요?	40 굿캐스팅
10	00 가요무대	00 본 어게인	5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11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개는 훌륭하다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0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다큐 인사이트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네트워크특선 <핑크피쉬>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30 EBS 마스터	17:45 피피루 안전특고대
07:15 미니특고대 슈퍼공룡파워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8:00 생방송 토티!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0 다크 로그인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댕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단 호기심딱지
08:30 출동! 슈퍼윙스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9: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오와 해오	20:00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페파 피그	15:25 출동! 슈퍼윙스(재)	<북유럽 제대로 즐기 -북극의 파라다이스, 로포텐 스텝바르>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4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금요일의 우리 집 1부 추억이 쌓이고, 행복이 커지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10 픽시(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0 야생의 지구
12:00 EBS 정오뉴스	16:40 당동댕 유치원(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00 EBS 뉴스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20 개구쟁이 스머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일(음운4월 10일 乙亥)

<p>36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48년생 겸손하자. 60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자. 72년생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니 신중하라. 84년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대응하라. 96년생 참신한 발상으로 변화를 꾀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1, 77</p>	<p>42년생 오랜만이라면 반드시 손재수가 따르다. 54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리라. 66년생 자생력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세이다. 78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90년생 형세를 타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02년생 진퇴양난으로써 고역이 가중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0, 93</p>
<p>37년생 행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게 된다. 49년생 선의를 악용하려는 이가 보인다. 61년생 결정적인 형국이 조성되는 마당이다. 73년생 망각한다면 실수로 이어진다. 85년생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라. 97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2, 66</p>	<p>31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43년생 주변인의 덕분에 호강을 하게 되는 국면이다. 55년생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상황 속에서 번득이는 지혜도 솟아날 것이니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67년생 보람이 될 것이다. 79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 될 것이나, 91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전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37, 76</p>
<p>38년생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것이니 각오 해야겠다. 50년생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겠다. 62년생 비슷한 것과 똑 같은 것은 다르다. 74년생 자신감 있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생 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긴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 98년생 시작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회열로 가득 차리라. 행운의 숫자 : 76, 72</p>	<p>32년생 공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44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56년생 여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 해야겠다. 68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80년생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하더라도 철저히 절제해야 한다. 92년생 밤심하다가는 결정적인 흠결을 남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68</p>
<p>39년생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51년생 현재의 손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63년생 역발상이 빛날 수다. 75년생 오히려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만들지 마라. 87년생 의형적인 판단은 핵심을 놓칠 수 있다. 99년생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0, 97</p>	<p>33년생 북이 눈앞에 와 있느니라. 45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맞으니 일이 뜻과 같이 되리라. 57년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라. 6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도찰 수 있느니라. 81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93년생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54</p>
<p>40년생 잔꾀 부리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도 있다. 52년생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괜찮다. 64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76년생 과감하게 진행해야 미련이 남지 않을 것이다. 88년생 바야흐로 기탄없이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00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포착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1, 98</p>	<p>34년생 절제된 언행이 뒤따라야만 하겠다. 46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에 놓인다. 58년생 지식보다 참다운 지혜가 더 요청 되는 때이다. 70년생 별로 상관 될 일이 아니니 패념치 말고 처리하라. 82년생 보람을 느끼리라. 94년생 구습을 버리고 참신함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3, 82</p>
<p>41년생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53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65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도량을 구축한다. 77년생 정확히 일치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눈발 것이다. 89년생 새로운 것이 생기는 기쁨이 있느니라. 01년생 단순하고 시릴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74</p>	<p>35년생 갈구하고 있다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47년생 본디 부터 없었던 것이나 같이 집착할 필요 없다. 59년생 실수한다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71년생 완벽을 추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83년생 협조자는 보이니 진행은 자연 된다. 95년생 전후사정을 살펴서 꼭 이유를 따져 보아야만 사후에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96</p>